



새것을 맞아 들이자

Ring in the new

툼 타펠 (Tom Taffel)

센티넬 온라인(Sentinel online)

2011년 12월 26일

계절이 바뀔 때와 더불어 성장과 쇠퇴가 온다. 그리고 명절 기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새해가 가까워 오며 따라 당신은 옛날 직장이나 집이나 인간관계 상황을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지 모른다.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은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얼마만큼 크기에 따라 유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변화에 대한 저항, 타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진전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심적 장애물 중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9, 10 절 참조)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수반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흔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진전을 맞으려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통해 나는 진전은 인간적 이력에 의해 제한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이다.

우리가 어둔 방을 밝히려 할 때, 그 방이 과거에 얼마나 오랜 동안 어두웠었는지, 얼마나 캄캄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류”의 이력, 또는 하나님 외에 이지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은 실체가 아니며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지는 그림자, 즉 빛과 깨달음과 진리의 일시적인 부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진전을 맞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 안에서 진리에 거스르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과제는 매우 “분주함”이나 철저한 탐색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세워둔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랑의 실증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는 늘 좋은 출발점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로 하여금 어디로 가도록 하시고자 하십니까; 당신께서는 저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시고자 하십니까; 오늘 날을 어떻게 해서 당신께 드리는 선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기도의 더 중요한 부분이다: 듣는 것, 듣는 것, 그 조용하고 작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즉 우리의 기도하는 능력 – 듣고 그분과 교통함이다.

우리가 심적, 육신적,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던 간에, 행복과 새로운 시작은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가능하다.

나는 메리 베이커 에디의 시, “나의 양을 먹여주십시오”에 나오는 논리적 진전을 사랑한다. 즉 “보여주십시오”로부터 “듣겠습니다,”로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와 “기뻐하겠습니다”로의 진전이다.

목자님, 가파른 언덕을 넘어
어떻게 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당신의 양들을 먹여야 하는지 보여 주십시오.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거친 길 끝까지
당신을 따르고 기뻐하겠습니다. (시집, 14 쪽)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께서 아셔야 한다 또는 하셔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도록 겸손하게 길을 비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 사항들을 관장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락한 생활이라든지 사랑이든지 소유물 등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것들 자체를 하나님과 맞바꾸고 과거와 덧없는 허상에 종종 연관된 목표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비록 때때로 알기 어렵지만, 우리가 심적, 물리적, 또는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던 간에 행복과 새로운 시작은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가능하다. 그리고 행복은 지역이나 계절에 구속 받지 않는다. 명절이나 사람, 장소, 사물 안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것은, 차이코프스키를 라디오 안에서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라디오는 아름다운 음악으로의 통로 – 즉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냄새를 맡거나 들을 수 없는 것들에 형상을 주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듯,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행복의 핵심이 아니다. 그것들은 분명 그 순간 우리가 감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은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그분의 틀림없는 사랑과 보살핌에 근거한다.

이제 새해를 곧 눈 앞에 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해주시는 활동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각자, 즐거움과 안정된 마음과 품위를 가지고, 우리를 전진시키는 영의 힘에 의지하여, 이를 성취할 수 있다.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절반만큼 만이 아니라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새로운 길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심어주신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앞으로, 위로 향하여 그리고 약속과 희망과 사랑과 평화와 건강과 조화와 영적 성장으로 가득 한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전진하자.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부터 축복 된 명절의 계절을 누리자. 우리 모두 움직이자!

톰 타펠은 캘리포니아주 샌 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다.